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방안 모색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목 차

I. 총 평	1
II. 주요 토론내용	2
① 주제발표(3인)	2
② 지정토론(2인)	4
③ 청중토론	5
④ 마무리 말씀	6
III.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론	6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7

[참 고]

<input type="checkbox"/> 의정토론회 사진	8
<input type="checkbox"/> 언론보도	9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방안 모색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기후변화로 인한 현재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 에너지 전환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기후 관련 민간협력기구 및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사용과 생태교통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함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2. 11. 03.(목), 14:00~16:00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
- 참석 : 50여 명(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도민 등)
- 주제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방안 모색

I 총 평

❖ 금번 토론회는 민간협력 기구 및 연구원,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전환과 시민햇빛발전소’, ‘기후위기와 교통’ 두 가지 발제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자리로

- 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심각성을 인식하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충남도의 현황과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확인하고,
- 시민들이 직접 출자한 햇빛발전소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생산한 전력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전기차 중심의 탄소중립 대책에서 벗어난 방안을 모색하였고,

- 향후 충남도민 참여형 햇빛발전소 설립 추진, 기업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위한 캠페인(RE100), 자전거 교통 활성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음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정기적인 논의와 피드백을 통해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① 기초발제 《이용길 생태교통으로 가는 길 대표》

- 에너지/기후위기 관련 도서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쯤의 미래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은 3천년간 모아온 지층 에너지를 백년 만에 삼켜버린 21세기 문명인에게 보내는 경고를 지금 우리가 처한 기후위기 상황에 비추어 비유하였음
- 또한 영화 ‘플랜75’의 내용과 연결하여 초고령화 사회, 노인 인구 급증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 현 세대들의 화석연료 무한 소비의 결과 기후위기를 초래한 현재와 미래세대 간 분노와 원망의 이야기를 현재 사회의 우려로 표현함
- 따라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햇빛발전과 생태교통 정책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에서 도민의 인식과 정책 변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함

② 주제발표1 《정현수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생산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시민이 직접 출자하여 햇빛발전소를 만들어 생산하고 공익사업에 투자하여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확산하는 ‘시민햇빛발전소’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제기함
- 기후위기는 산업화로 인한 온실가스의 증가, 탄소경제를 예로 들며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토대로 충남이 나아가야 할 ‘도민햇빛발전소’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였음
- 또한 안전, 청결,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시민햇빛발전소’ 장점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먼저 유희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RE100 캠페인을 시행할 것을 제안함

③ 주제발표2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인연구위원》

-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해 자전거, 걷기 등 무동력 이동 수단의 이용과 대중교통수단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함
- 파리, 네덜란드 등 유럽의 사례 제시를 통해 충남, 나아가 대한민국의 생태교통 실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음
-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정책을 시행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연계한 ‘녹색교통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
- 이를 위해 자전거 도로 확대, 도민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함

2 지성토론(2인)

① 서상옥 (에너지협동조합 2050 함께 이사장)

- 에너지 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 주도, 시민 중심의 시민출자형 태양광 발전소 건립 등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함
- 대구광역시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를 사례로 제시하며, 대구의 시민햇빛발전 인프라 구축, 햇빛발전 생산소비자 ICT 플랫폼 전략, 햇빛기업 운영을 통한 고용 창출 등이 시사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검토 시급성을 설명함
- 지역에 기반한 태양광발전소 건립, 시민참여를 위한 조합원 확대, 도민의 친환경 가치관 형성과 실천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 확대, 전문성 강화 등의 지역과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② 김우수(천안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생태교통 실현에 앞서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 필요성을 제기함
- 온방향 횡단보도 및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로 교통약자의 이용 편리성 증대와 도심형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 도시형과 농어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의 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생태교통 구축을 위해 연령대별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3 청중토론(질의답변)

- 대구 시민햇빛발전소와 관련하여 시민 10만 참여 플랫폼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 시민이 느끼는 반응, 시민을 위한 사업설명회, 부지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함

[질문 : 천안시민 1]

- 대구 시민햇빛발전소는 20명을 시작으로 현재 16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출자 공고 5일 만에 1억 5천만 원을 모았음
- 성공적인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햇빛발전소에 대한 교육과 지역 에너지 전환을 마을 단위에 추진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함

[답변 : 정현수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천안시민2는 2022년 3월부터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고 설명하며 천안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인프라 구성이 매우 미흡하다고 문제점을 제기함
- 우리나라도 자전거 이용활성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도입하기 위한 천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함

[질문 : 천안시민2]

- 도시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과 시장, 의원 등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수준은 시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시민 의식 개선이 특히 중요함
- 자전거 이용자가 대중교통 이용자가 되며,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전거 이용자가 될 수 있는 생태교통 구출을 위해서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답변 :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천안지역의 자전거 도로에 가로등과 CCTV 부재로 인한 불편함, 안전에 대한 우려 등 문제점을 제기함
-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자동차 관리 대책은 강구하면서 정작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미흡함
- 시내 버스비 무료 정책을 청소년, 노인에서 전 도민으로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자전거를 연계한 생태교통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함

[질문 : 천안시 의원]

4 마무리 말씀

-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극복과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토론자로 나서 시민참여기구와 전문가, 도민 등이 함께한 자리로, 충남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개최되었음.
- 토론회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참석하신 분들과 진행사항을 공유할 것이며,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김선태 충청남도의회 의원]

III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론

<도출과제>

1. 시민햇빛발전소 설립을 위해서는 시민 인식개선과 지속적인 캠페인, 사전 부지확보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2. 생태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과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결 과>

- 충남도와 협의하고 도의회 및 전문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함
 - 시민햇빛발전소 설립을 위한 사전 유희부지 확보
 - 생태교통,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민교육 필요
 -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
 - 자전거 도로 신설과 안전시설 설치 필요
 -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연계한 교통 체계 구축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충청남도청
 -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 붙임 1. 의정토론회 사진
2. 언론보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방안 모색

일시 : 2022. 11. 3.(목) 14:00~16:00 장소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 주최 : 충청남도의회



아시아투데이 | <https://me2.do/5ZvTjk1f>



충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방안 모색

기사승인 [2022-11-03 17:12]



김선태 충남도의회장이 3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제공=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소규모 발전·친환경 교통 인프라 전환 등 논의... "실질적 정책 마련 목소리 낼 것"

내포/아시아투데이 김관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선도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선태 의원의 신청으로 3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열린 이번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방안 모색 토론회'에는 도민과 관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코앞에 닥친 기후위기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과 정책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선태 의원이 좌장을, 이용걸 '생태교통으로 가는 길' 대표가 기초발제를 맡았고 정현수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과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에너지전환과 시민햇빛발전소, 기후위기와 교통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BreakNews

브레이크뉴스

충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실질적 정책 마련 목소리 낼 것"

기사입력시간 : 2022/11/03 [16:08:00]

김정환 기자

▲ 충남도의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좌장 김선태 의원) (C)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선도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를 위해 충남도회는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의 신청으로 3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열린 이번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코앞에 닥친 기후위기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과 정책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세계 곳곳에서 유례없는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등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각국이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있다"며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충남도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해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선태 의원이 좌장을, 이용걸 '생태교통으로 가는 길' 대표가 기초발제를 맡았고, 정현수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과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에너지전환과 시민햇빛발전소, 기후위기와 교통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